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음 7월 8일) 제234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전'

송하진 도지사, 기재부 찾아
주력산업 체질 강화 등
주요 현안 예산 반영 건의
예산심의 마무리 시점까지
도-정치권-시군 공조 나서



주력산업 체질 강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예산이 정부안 예산에 필수 반영 되도록 요청했다. 이번 국가예산 활동은 기재부 예산심사가 오는 19일까지 진행 후 최종 시트가 마감(전산입력)될 예정으로, 도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서는 이번 주가 예산반영의 중요시점이라 판단하고 중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기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복원 등 성공적으로 꽃 피고 열매 맺는 춘화추실 도정(春花秋實 道政)으로 전북 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7일 기재부 막바지 심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로 상경해 기재부 예산심장, 총괄·사회·경제·복지예산심의관 등 예산 핵심인사를 방문 면담하고, 자동차·조선 등 기존

을 위해 조선기자재기업이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사업화 국비 90억원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구축비 50억원, 가변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버스/트럭 운영시스템 개발비 45억원 등과 식품-중자-ICT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위해 도내 지역 생명공학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국가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5억원 '복합미생물 산업화 기반' 실험실 구축비 14억원 등 반영을 건의했다.

만 부두시설건설' 51억원, 새만금 상수도 건설 10.8억원 등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도내 각 지역별 관광자원을 특성화·연계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행체험 1번지 실현 및 전북의 자존의식 복원을 위해 국가차원의 국학기관인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기본 및 시설계용역비 5억원, '출판산업복합센터 조성' 타당성용역비 5억원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앞으로,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송하진 지사 등 지휘부, 실국장 등이 국가예산 확보에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 단계에서도 지역국회의원 및 수도권 지역 등 범전북 출신 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푸른 하늘 아래 고추 말리기



입추(立秋)를 하루 앞둔 7일 오후 익산시 여산면의 한 고추농가에서 농민들이 빨강게 익은 고추를 햇볕에 널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완산공원 방공 벙커 문화시설로 '탈바꿈'

전시상황에서 방공호와 지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40년 전에 조성된 완산공원의 동굴형 벙커가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유희공간 문화재생 기본계획수립 연구 대상지 공모사업'에서 완산공원 내 옛 충무시설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옛 충무시설이 문화관광시설로 재생되면 20년간 굳게 문이 닫혀 있는 폐공장이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팔복 예술공장과 더불어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재생시설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원과 지역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갖춘 뒤 다음 달부터 연구기관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 올 연말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국비 2000만원이 투입되며 충무시설의 사업성 분석, 환경 및

문화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내달부터 연구기관 통해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올 연말 내에 완료 계획



전주시가 지난 1973년 전시상황에서 방공호와 지휘시설로 활용하고자 만들어진 완산공원 동굴형 벙커를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한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물리적 현황 조사, 공간·운영 기본방향, 문화재생 방향성 등의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 이후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옛 충무시설은 2816.35㎡(853평)의 면적에 터널 길이는 130m 가량에 달하며, 지난 2006년 용도폐기 후 2014년에 사용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유희공간으로 남아 있다. 시설 내부는 사무실 10개, 기계실, 배전실 등 20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15°C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수·보강 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 2017년 정기 안전점검에서도 B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관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옛 충무시설이 문화재생 기본계획수립 연구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희소성과 지역적·사회문화적·장소적·건축적 가치가 높은 장소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옛 충무시설이 향후 진행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관광시설로 재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북도,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4명 구성 정읍 등 7개 시군서
전북도가 산사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한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4명(단장, 단원3)으로 구성되어 정읍시 등 7개 시군(28명)에서 운영되며,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립재해 예방을 위한 순찰·점검 및 응급복구,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업무를 지원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과 생활권 주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은 평년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며, 강수량은 비슷하겠으나 지역적 편차가 크고 국지적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성 기자

가자~ 빠지자!
신나는 동화나라
야외물놀이

2019 임실치즈테마파크 아쿠아 페스티벌

2019. 7. 20.(토) ~ 8. 1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전화 063-643-2300 www.cheesepark.kr